

Dolce & Gabbana

1982년 돌체와 가바나 동업

1985년 *MILANO DONNA* 컬렉션의 패션쇼에 참가
하여 성공적인 반응

1989년 언더웨어, 넥타이, 스카프, 신부복 등 탄생
일본 'Onward kashiyana' 그룹과 판매계약 협정

1990년 남성 프레따 보르테 컬렉션 발표

Ancona에 Genny 컬렉션 *Complice*를 디자인

1992년-1994년 여성과 남성 향수 판매

1994년 *Ittiere* 그룹에 의해 생산되는 "D&G" 컬렉션을
런칭





디자이너 돌체 & 가바나는 스타를 스타로 보이게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들의 스타일은 '이 자벨라 로셀리니', '마돈나', '데미 무어', '니콜 키드먼'과 같은 스타들에게서 빛을 받는다. 시칠리아 태생인 도메니코 돌체 (1958년 생)과 베네치아 출신 스테파노 가바나 (1962년 생)는 밀라노의 아틀

리에에서 보조로 일하며 만났다. 바로크를 서로 무척이나 좋아했던 그들은 1985년 밀라노 컬렉션의

창시자가 "뉴 탠트(New Talents)"를 선보이기 위한 패션쇼에 그들을 초청했을 때 돌체 & 가바나 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어냈다. 그 다음 해, 여성복 솔로 패션쇼를 처음 열었으며, 그 후에는 남성복 과

향수를 선보였다. 1999년에는 이탈리아, 일본, 홍콩에 이어 런던에 쇼를 개장했다.

절충적이면서도 번성하는 보헤미아에 첫 영감을 받은 돌체 & 가바나의 화려한 컬러와 애니멀 프린 트는 '상류 히피'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주로 이탈리아 영화에서 영감을 따왔다. 도메니코 돌체는 이 렇게 말한다.

"우리는 마치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디자인합니다. 스토리를 먼저 생각해낸 다음 입힐 옷을 디자인 하는 것이죠"

그들은 패션을 유행시키는 것보다는 최고의 작품을 창조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인다. 사실 그들은 자 신들이 패션사에 남긴 유일한 업적이 검은 색 브래지어일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2010 s/s collection

사실 디자이너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이번 계기로 막 찾아보게 됐는데 찾다가 눈에 확 들어온 것이 들체 앤 가바나의 작품들이다. 이번 컬렉션은 다른 년도의 작품들에 비해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강렬한 느낌의 디자인들이 눈을 사로잡기엔 충분했다. 다른 디자이너들과는 뭔가 다르게 실질적인 면도 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욱 더 끌렸던 것 같다. 앞으로의 작품도 정말 기대된다.

